

안락사

오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방역업무에서는 손을 떼고 내원환축만 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모든 스케줄은 뒤로 미루고 손녀 오기만을 기다린다. 아침에 와서 1시간 30분 정도 있다가 유치원에 가는데 손녀는 그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그 시간에 저랑 놀아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매우 차별한다. 요즘은 내가 구제역 때문에 저랑 못 놀아 줘서 팔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오늘은 베베(손녀는 나를 이렇게 부른다.)가 소정이랑 유치원 차가 올 때까지 놀아줄게"

"정말이야? 그럼 커피 타 놓을께 올라와"

녀석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겐 절대로 커피를 타 주지 않는다. 하긴 타 주는게 아니라 저어주는 것이지만 그 유세가 당당하다.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린다.

"누구세요?"

"여기 **숙인데요 원장님 계세요? 후후후"

지은 죄도 없지만 가슴이 떨경한다.

"제가 원장인데요 누구세요?"

"예 다름이 아니라 우리절에 진돗개가요. 옆구리에 종기가 생기더니 그게 터져서 꼼짝도 못하고 괴로워하는데 너무 안쓰러워 안락사를 시켰으면 하는데 언제 시간 있으세요?"

생각해 보니 13년전에 * * 숙에 대전에 있는 후배의 소개를 받아 진돗개를 한마리 소개 해 준일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절에서는 개를 안 키우는데 하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 절의 주지가 해병대 후배의 동생이고 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준일이 생각났다. 그래도 손녀와 한 약속이 있어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들릴게요"

손녀가 유치원에 등원하고 Magnesium Sulfate 10g을 증



이 인 재
 조치원동물병원 원장,
 세종특별자치시 지부장
 cap62758@hanmail.net

류수에 녹여 준비를 했다. 안락사라는 것은 잘 죽기만 해서 되는게 아니다. 그 동물이 고통없이 편안하게 죽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도 항상 믿을수 있는 약은 이약뿐이다 혈관에 주사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젊은 수의사들은 기피하기도 하지만 노련한 수의사인 나에게는 그게 장애가 될 수는 없다.

가방을 챙겨 출장을 간다. 날씨가 너무 화창해 차라리 슬프기 까지 한다. 오늘의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어느 생명체이건 간에 수억년동안 진화한 진화의 나무의 제일 끝부분에 존재한다. 따라서 적자생존에서 수억년을 운 좋게 살아남은 기적의 생명체들이다.

혹독한 추위를 감방같은 개집에서 목줄을 걸고 버티어 왔는데 이제 그 추위가 다 물러가고 화창한 봄날이 왔는데 너는 생을 마감해야 하고 또 나는 너의 생명을 거두려고 가고 있다.

13년 전 나는 너를 그 절에 살게 했고, 이제 나는 너를 거두러 간다. 참으로 이상한 인연이다.

집사람은 착실한 불교 신자라 가급적 안락사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절에서 이를 요구할땐 오죽 사정이 딱했겠냐며 시작하긴 했어도 막상 하려고 하니 마음이 이상하다.

나는 우리 할머니가 동해사라고 하는 절에 기도기도 끝에 얻었다고 내 이름자에 동방 寅자가 들어 있다. 또, 우리 조상인 효령대군께서도 불자시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을 외면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셨고 또 나는 태어날 때 땃줄을 목에 감고 나온 배넛불자라고 항상 말씀 하셨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군에 있을 때 사귀던 여자가 그렇게나 교회에 다니고 애걸해도 거절하고 그 여자까지 버린 일도 있었다.

사실 나는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아니고 할머니 어머

니가 절에 다니셨기에 그냥 다니는 것이고 나는 이게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금호강을 건너서 동면으로 가는데 거기는 요즘 한창 공사가 굉장하게 진행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 고수부지가 온통 파헤쳐지고 행정도시로 들어가는 도로가 신설되고 또 그 길을 위해 새로운 멋진 다리가 한창 건설되고 있다. 아마 3-4개월이면 완성될 것이다. 원안이 통과되고 부쩍 속도가 붙었다. 아지랑이가 가물거리는데 언제 추운겨울이 지났나 싶다.

절에 올라가기 전에 주차장이 있고 그곳에 "下馬碑"가 하나 있다 거기서부터 신자들은 걸어서 올라가란 뜻이다.

그러나 나는 그길 획 지나서 대웅전 옆의 개집까지 타고 올라간다. 나는 급하게 왔기 때문이다.

개집을 보는데 보살님이 왔다.

우리나라의 유수종단에 속해 있고 주지는 불경대학을 나온 정식 사찰이고 신도도 많고 지역사회에서 명망있는 있는 절이다.

"어떻겠어요?"

"글쎄요 이제 살만큼 살았고 또 고통도 심하니 안락사도 불가피 할거 같습니다."

"큰스님에겐 말씀을 안드렸는데 비밀로 해주세요"

"예 업무상 취득한 비밀은 꼭 지켜야죠"

헌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소신을 가지고 한 행동에 왜 비밀이 필요 한지

"저는 안 들어가면 안될까요?"

"왜요?"

"그냥요 있기가 뭐해서요"

"그럼 그러세요, 다 되면 말씀 드릴게요"

개를 보니 하루 이틀에 죽을 개는 아닌것 같다. 고통은 있

을 지라도, 마누라의 말이 생각난다.

"개에게는 물어보지 않았잖아" 라는 말, 이 말은 오래전에 외국인이 개를 한 마리 데려와서 안락사를 시켜 달라고 했던 말이다. 내용인즉 자기는 귀국을 하는데 개를 데리고 귀국할 형편은 못되고 개를 두고 가면 한국 사람들이 개를 잡아 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이야기였다. 이때 마누라가 거절하라고 하며 한 말이다. 어쨌든 개를 보니 눈이 초롱초롱한게 좀 마음이 꺼림칙 했다. 접근하니 이를 들어내며 와중에도 자신을 보호한다. 동물의 마지막 단계가 자기 보호본능의 상실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간겨 같다. 보조원도 없이 혼자 혈관주사는 곤란할것 같다.

입을 묶고 안정제 주사를 하니 눈이 풀어진다. 고무줄을 매고 혈관주사를 하는데 다른 개 같으면 10CC만 넣어도 죽는데 이개는 평소에 독하기로 소문난개라 무려 30CC를 넣으니 숨을 놓는다. 심장을 청진하니 맥박이 끊어 졌지만 혹여나 해서 10CC를 더 넣었다. 보살님에게 가서 보고하니 비용이 얼마냐고 해서 50,000원이라고 했더니 두말 하지 않고 주며 비밀을 꼭 지켜달라고 했다.

"죽인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중지 시킨 것입니다" 하며 보살님을 위로 했다.

돌아오며 생각하니 내가 뭘 하고 왔나 하고 생각한다. 내가 한일이 먼 훗날 업으로 작동되진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집에 와서 돈을 보니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다. 기분이 묘해진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우체부가 와서 등기가 왔다고 하여 받아보니 "경찰서장" 이라고 딱 하니 찍혀 있다. 지은 죄도 없으면서 가슴 졸이며 뜯어보니 벌금딱지 않낸 것이 1만원 추가가 붙어 4만원이 나왔다. 마누라 알까 몰래 집어 넣고 오늘 받은 비용으로 내면 되겠구나 생각하며 먼 산을 바라보면 웃었다. ☺

